* 12월 7일 열리는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준비 *

MC : 오는 12월 7일 일본 도쿄에서는 일본 전 국왕 등 전범들을 피고로 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 열립니다. 검사단의 일원으로 이번 재판의 기소장 초안을 만들고 있는 성신여대 법학과 조시현 교수님과 함께 이번 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이번 재판이 어떤 성격의 재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 북한 종국 등 8개국 관련단체 등이 준비해온 국제민간인법정)

2. 사실 위안부 배상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된 문제인데요, 최근 헤이그에도 다녀오셨다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이나 국제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국제형사재판소의 전범처리 흐름 등)

3. 특히 이번 재판의 기소장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남북 공동 기소장,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 국제기구나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 법정이다 보니 어려운 점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어떻습니까?

5. 이번 한 번의 재판으로 위안부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까요?